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부실기업 퇴출판정“ 유감 ”

한국경제가 IMF 위기에서 벗어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경제위기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000년 11월3일 단행된 부실기업 퇴출판정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은행채권단은 은행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287개 부실판정 대상기업을 정상기업 136개, 회생 및 지원대상 97개, 정리대상 52개, 판정보류 2개로 분류했다. 판정보류는 물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대상이다. 정리대상 52개는 정리방법에 따라 법정관리 11개, 청산 18개, 매각 20개, 합병 3개 등으로 분리해 처리된다.

현대건설, 쌍용양회의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기업을 위주로 49개에 대해 무더기 퇴출 및 법정관리 결정을 내림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5만-1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하니 경제 · 사회적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 증가나 협력기업 부도 등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리대상 52개 중 화학기업은 하나도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으나 화학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다. 퇴출대상에 화학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수익성 마이너스 상태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그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학기업 중 부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곳도 여럿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퇴출판정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석유화학기업 중에서는 「빅딜」무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대석유화학이 대표적이고, 화학섬유기업 중에서도 워크아웃 상태인 고합이나 새한은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고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톤당 300달러를 오르내리는 상태에서 2조-3조에 이르는 부채의 이자를 감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화학섬유 또한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아시아의 경제회복 주춤에 따라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도 몇몇은 경영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 발표를 지켜본 많은 금융 및 산업 전문가들이 대체로 좀 더 과감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퇴출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산업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섬유나 건설 분야의 부실기업을 더욱 과감히 정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는 IMF 위기 이후의 경험을 보더라도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오히려 부실이 커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형식만 과감한 퇴출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법정관리중이거나 이미 퇴출판정을 받아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이 52개 중 절반을 넘고 있고, 새로이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부실기업은 20개를 약간 넘고 있을 정도이다. 그것도 건설기업을 제외하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부실기업이 또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부도를 내는 지경에 이르면 자칫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해 또다시 경제불안을 재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리대상 기업수가 1998년보다 늘었다는 것도 신통치 않고, 정부와 채권단의 의지가 강해졌다는 평가도 내용상으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은 부실기업 정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부실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출자전환과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철저히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화학기업 중에는 국제유가와 중국의 정책적 향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2001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도 2-3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화학기업들도퇴출대상에서제외된것에만족할것이아니라오너와경영진, 종업원모두가자성하는마음으로뼈를깎는자구노력을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화학저널 2000/11/13>